

청소년 소설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성장
- 표명희의 『널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의
경우 -

정 용 호*

차 례	
1. 서론	3.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나타난 ‘탈합치’로서 ‘성장’
2. 『널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의 비교	1) ‘온로드’와 ‘오프로드’ 사이의 갈등과 ‘모성’을 향한 그리움
1) ‘휴학’과 ‘자퇴’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	2)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가능성 수용
2) 전체로서의 사회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서술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의는 표명희의 초기 청소년 소설인 『널 위해 준비했어』(2007)와 『오프로드 다이어리』(2010)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성장이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난민 서사에 집중된 표명희 청소년 소설에 관한 논의에 ‘은둔형 외톨이’의 성장이 지닌 의미를 연결하고자 한다.

* 울산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객원교수

단편이었던 『널 위해 준비했어』가 장편인 『오프로드 다이어리』로 확장되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성장’은 사회로의 복귀나 정상성 회복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청소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세계를 구축한다. 『오프로드 다이어리』는 청소년의 선택과 욕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서사를 보여주며 ‘은둔형 외톨이’를 적응 실패의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실존하는 주체로 제시한다. 또한 ‘온로드’와 ‘오프로드’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비를 통해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 세계에 고정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적 기준이 청소년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명희의 청소년 소설은 ‘은둔형 외톨이’를 교정이나 복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주변인으로서 청소년의 정체성 고민은 국경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규정당할 수밖에 없는 난민의 고민과도 연결되고, 이후 표명희의 청소년 소설의 초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성장,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학, 청소년 소설

1. 서론

표명희는 2001년 단편소설 『야경』으로 등단하여 2014년 단편소설 『심야의 소리.mp3』로 제22회 오영수 문학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표명희는 『널 위해 준비했어』(『라일락 피면』, 창비, 2007), 『오프로드 다이어리』(창비, 2010), 『어느 날 난민』(창비, 2018), 『버샤』(창비, 2023) 등의 청소년소설을 창작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어느 날

난민』이다.

『어느 날 난민』은 청소년 문학보다는 난민 문학으로서 더 큰 가치를 부여받았다.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을 난민 문학으로 논의한 경우 대체로 난민을 다룬 점에 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난민에 관한 전형적인 이미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는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했다.¹⁾ 그러나 표명희는 『어느 날 난민』에서 다양한 국적과 성향을 지닌 난민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 청소년’에 주목하고 있다. 『어느 날 난민』에서 표명희는 미혼모인 여성 청소년과 그의 동생(아들)인 남성 아동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면서 ‘주거 난민’, ‘경제 난민’과 같은 다양한 난민의 가능성을 보였다.²⁾ 『버사』에서는 본격적으로 무슬림 난민 여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이행선은 이와 같은 지점에 주목하면서 『어느 날 난민』의 ‘독특한 난민성’이 한국의 사회적 약자와 국제 난민을 동일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난민이 처한 상황에 더욱 이입할 수 있는 효과를 낳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연대와 환대의 자세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³⁾ 또한 『버사』를 통해서

- 1) 김정민은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난민 문제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을 최인석의 『스페인 난민수용소』와 비교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난민과 그들의 인권 문제가 형상화되는 양상과 지향점을 모색해 보였다. 김정민, 『경계 위의 인권: 난민 문학의 인권담론』, 『법과 사회』 6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1-24쪽. 강진구는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이 등장인물의 박해 서사를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난민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전형적인 난민 이미지를 재현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난민 서사와 공통된 문제점을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강진구, 『한국문학 속 난민의 재현 양상-최인석의 『스페인 난민수용소』와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94집, 중앙어문학회, 2023, 171-196쪽.
- 2) 표명희의 독특한 난민성은 국제법상 인정하는 난민의 정의를 넘어서는 범위까지를 표현한 데서 기인한다. 이용호는 난민의 정의와 범위 등이 20세기 전반의 유럽 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들어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과 이로 인한 난민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317-318쪽.

는 한국에서 중동 지역 무슬림 난민을 바라보는 관점에 내재한 공포와 혐오를 상호이해와 공존, 연대 지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⁴⁾

그러나 표명희의 청소년 소설에서 ‘난민’은 구체적인 대상으로서라기 보다 사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확장된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마르쿠스 슈뢰르에 따르면, 모든 이주민은 영토적 경계보다 더욱 극복하기 힘든 ‘법적 인정, 문화적 수용, 정치적 참여, 관용과 이해’의 경계로 인해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⁵⁾ 청소년 또한 ‘주변인’으로서 제한적인 참여와 배제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

표명희가 자신의 소설에서 ‘난민’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 자체에 주목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도적·공간적 경계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들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명희의 초기 청소년 소설에서 다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일상적인 사회 내부에서 고립을 경험하는 ‘디아스포라’로 읽을 수 있다. 탈영토화된 집단으로서 ‘디아스포라’는 집단의 정체성이 특정 국가(지역)에서의 거주 여부로 규정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다.⁶⁾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역시 한국 사회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

3) 이행선, 『난민,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과 인권, 문화 갈등: 표명희, 『어느 날 난민』 (2018)』, 『민주주의와 인권』 제2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3, 229-261쪽.

4) 이행선, 『중동 아랍권 무슬림 난민의 유입과 한국의 수용: 표명희, 『버샤』(2023)』, 『인간·환경·미래』 33,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4, 61-103쪽.

5)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22쪽. 국경을 초월한 단일화된 세계를 구성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별 사회는 ‘유사-외부’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같은 책, 332-333쪽.

6)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정영주 옮김,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르, 2014, 67쪽. 물론 민족의 형성에서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통의 영토, 국가이다. 정치적 국경선은 민족을 형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981, 33쪽.

그러나 청소년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여 보편적인 삶의 양식에 따른다. 리처드 세넷에 따르면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고통을 막으려는 시도는 청소년기와 같은 성장 단계에서 외부의 힘에 압도당할 때 미리 그 힘의 크기와 의미를 상상함으로써 회피한다. 이러한 회피는 청소년이 스스로 설정한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⁷⁾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합치된 상태로 고립하게 만든다. 이는 청소년이 실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사회에서 요청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허라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체는 이상적 존재로 추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상황 의존적인 존재이다.⁸⁾ 다양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우연을 긍정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탈합치’를 수용함으로써 ‘합치’에 다다른 실존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

표명희가 발표한 최초의 청소년 소설인 『넌 위해 준비했어』와 그것을 바탕으로 확장한 표명희의 첫 장편 소설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다룬 청소년은 ‘은둔형 외톨이’이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7) 리처드 세넷, 유강은 옮김, 『무질서의 효용』, 다시봄, 2014, 48-49쪽. 또한 “일관된 공동체 이미지를 순수화하면 사람들의 ‘다름’에 대한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승리를 거둔다. 이런 두려움이 경험의 위조를 낳는다. 비슷해지려는 욕망을 표현하는 ‘우리’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 서로에 관해 모든 걸 안다고 상상하며, 사람들의 지식은 그들이 어떻게 거소 똑같아져야 하는지에 관한 환상이 된다.” 같은 책, 72쪽.

8) 허라금,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철학과현실사, 2004, 251쪽. 이는 조지 허버트 미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드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나은영, 『조지 허버트 미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26쪽.

9) 프랑수아 줄리앙, 이근세 옮김, 『탈합치』, 교유서가, 2021, 99-100쪽.

사용되던 용어로 1960년대부터 문제가 된 대인공포증이 1970년대 ‘등교 거부’와 1980년대 ‘퇴각신경증’의 현상을 거쳐 1990년대에 더욱 확산되었다.¹⁰⁾ 특히, 청소년에게 나타난 ‘등교 거부’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억압당한다는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2005년을 기점으로 ‘은둔형 외톨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에 관한 연구와 지원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지원책은 대체로 사회로의 복귀에 집중되어 있었다.¹¹⁾

표명희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은둔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의 삶을 긍정하고 격려한다. 표명희는 “그들도 우리처럼 헤매고 숨차하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인지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¹²⁾ 이처럼 표명희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표명희의 청소년 소설 중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난민 문학 이전에 창작한 청소년 소설 단편 『넌 위해 준비했어』와 장편 『오프로드 다이어리』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표명희만의 성장 담론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표명희는 ‘은둔형 외톨이’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청소년의 내면 성장을 그려내고 있다.

이보영 · 진상범 · 문석우에 따르면, “성장소설은 젊은이의 내면적인

10) 이소베 우시오,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16-17쪽.

11) 이영식 · 최태영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이나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대인 관계를 늘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영식 · 최태영,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우리 모두의 이야기』, 학지사, 2022, 198쪽.

12) 표명희, 『오프로드 다이어리』, 창비, 2010, 211쪽. 이하 각주에서는 『오프로드 다이어리』, 인용 면'으로 표기함.

성장 과정을 다룬 소설”이라고 정의한다.¹³⁾ 또한 성장소설에서 펼쳐지는 자기 형성의 여정에는 좌절이 존재해야 하며, 그런 좌절이 없다면 진정한 성장소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작자의 비판과 통찰”을 보여준다.¹⁴⁾ 물론, 사회적인 비판과 통찰이 반드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가에 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존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관이나 관습에 맞서던 청소년이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일원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에 집중하면서 사회로부터의 탈주를 추구하는 것은 ‘낭만주의적 성장소설’, 시민적 규범이나 이상 또는 질서와 통합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을 ‘시민적 성장소설’이라고 나누기도 한다.¹⁵⁾

청소년 문학에서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향한 교육적 성격을 완전히 거두어낼 수는 없지만,¹⁶⁾ 하나의 기준과 답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데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 서사를 표현할 때 청소년 소설의 가치가 성립될 수 있다. 구자황에 따르면, 단편과 장편의 구분과는 관계없이 유년기와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세계에 대한 각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면 성장소설에 포함할 수 있다.¹⁷⁾ 이는 청소년을 계몽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란은 근대소설에는 성장소설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소설도 성장소설의 요소를 지니지만, 청소년 소설은 더 나아가서 근대사회의 산물인 청소년이라는 세대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회의하고 재고하는 탈근대적인 영역으로

13) 이보영·진상범·문석우,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13쪽.

14) 위의 책, 15쪽.

15) 위의 책, 20쪽.

16) 정용호, 「청소년 시가 나아갈 방향성과 청소년 시집에 나타난 비판 의식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309-340쪽.

17) 구자황,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교육 정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7집, 우리문학회, 2012, 193-218쪽.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시대마다 ‘성장’의 관점이 다를 것이기에 성장소설이 반드시 어떤 주제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관습과의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추구하는 성장의 과정은 ‘탈합치’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탈합치’와 ‘합치’의 관점으로 『넌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표명희가 ‘은둔형 외톨이’인 청소년의 성장을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살펴보고, 그의 청소년 문학에서 읽을 수 있는 성장의 의미를 가늠하고자 한다.

2. 『넌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의 비교

『넌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의 주인공은 ‘빔’이다. 단편인 『넌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빔이 자신의 방에서 벗어나는 장면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장편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빔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나서면서 만나는 여러 인물과 그 인물을 통한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세심하게 그려낸다. 그와 함께 빔에게만 집중되는 서사의 무게가 ‘엘리스’와 ‘패로디’, ‘찬우’와 같은 여러 청소년에게 분산된다는 점에서도 장편의 특징이 엿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빔이 자퇴를 결심하고 은둔하는 계기와 방안에서 나가기 위해 결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 장에서는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휴학’과 ‘자퇴’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

표명희의 두 작품에서 ‘청소년’은 교육받을 의무를 지닌 존재이다. ‘빔’,

18) 오세란, 『청소년소설의 장르 용어 고찰』,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장르론』, 청동거울, 2023, 302쪽.

‘앨리스’ ‘패로디’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나는 ‘찬우’의 공통점은 모두 ‘등교 거부 청소년’이자 ‘은둔형 외톨이’라는 점이다. 빔, 앨리스, 패로디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상세계에 갇힌 청소년이다. 소설 속 인터넷 카페인 ‘세상 속으로’는 우울증이나 시선 공포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증상을 앓으며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도 이곳이 곧 그들에게는 세상 속으로 향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반면, 이들과 관계를 맺는 어른인 ‘담임’, ‘엄마’, ‘찬우 할아버지’, ‘박봉만 경장’ 등의 기성세대는 끊임없이 학교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청소년’은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더라도 세상 전체가 그들을 학생으로 대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빔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를 선택한 것은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탓이다. ‘청소년=학생’이라는 확고한 틀에 갇혀 어른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던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공간에 틀어박히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앨리스는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던 친구와 눈이 마주치면서부터 시선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패로디는 대인공포증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 이면에는 모두 성적을 놓고 경쟁하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빔은 아빠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엄마의 우울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에 가입했다가 엄마의 자살 이후로 이곳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를 선택하는 빔의 상황은 단편인 『널 위해 준비했어』와 장편인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편인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빔’이 학교를 쉬면서 엄마의 간호를 맡는 모습이 수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반년 동안 병원 신세였던 엄마 곁에서 빔은 꼬박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¹⁹⁾라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19) 표명희, 『널 위해 준비했어』, 원종찬 엮음, 『라일락 피면』, 창비, 2007, 231쪽. 이하 각주에서는 『널 위해 준비했어』, 인용 면'으로 표기함.

서 청소년은 사회나 가정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점철된 존재처럼 그려진다. 실제로 ‘빔의 엄마’는 빔의 아빠가 죽고 난 이후에 ‘빔’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반면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엄마의 병간호를 맡았던 ‘빔’이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엄마는 모두 네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내장 파열에 척추와 대퇴골을 다치는 큰 부상이었다. 고3인 누나를 대신해 빔은 휴학을 결심했다. 엄마 병간호를 위해서였다.”라는 서술은 빔의 ‘결심’이 자기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엄마는 빔의 휴학 선언을 “학교 가기 싫어 핑계” 대는 것으로 의심하고, 빔 역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빔이 엄마의 간호를 얼마나 희망했느냐, 누나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했느냐와 관계 없이 등교 거부라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휴학을 결심한 점은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등교에 관한 ‘빔’의 구체적인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빔이 등교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빔의 등교 거부는 엄마의 퇴원 날에 이르러 마침내 자퇴 결심으로 나아간다. 병원에서 하릴없이 엄마에게 연결된 링거만을 바라보며 지내던 빔은 세속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이 깨달음은 두 작품 모두에서 언급되는데, ‘생로병사’의 현장에서 목격한 적나라한 군상들이 청소년이자 학생으로서 마주하지 못했던 현실의 민낯과 연결된다. 빔은 엄마가 퇴원하던 날 졸업생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한다.

물론, 자퇴를 결심하는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자세히 서술되지 않았다.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엄마를 간호해야 했던 상황에서 우연한 깨달음을 얻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나아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오프로드 다이어리』에

서는 애초에 빔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휴학을 자처하면서 엄마를 간호했던 것이고, 병원에서의 경험이 등교 거부를 자퇴의 형태로 귀결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서술은 다음과 같다.

㉔ 학교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담임선생님이 다녀간 어느 날, 빔은 결심했다. 링거병에서 푹푹 이슬처럼 떨어지던 일흔여덟 번째 수액 방울을 보면서였다. 다시 학교에 간다는 건, 밥맛을 알아버린 아기가 다시 이유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싱겁고 김빠지는 일일 것 같았다.

절룩거리는 엄마를 부축해 병원을 나서던 날, 빔은 정규 교육과정을 속성으로 마친 졸업생이 된 기분이었다.

난 로드 무비를 만들 거야.²⁰⁾

㉕ 학교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담임이 다녀간 그날 빔은 결심했다. 링거병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던 맑은 수액 방울을 보면서였다. 다시 학교에 간다는 건, 밥맛을 알아버린 아기가 이유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싱겁고 김빠지는 일 같았다.

절룩거리는 엄마를 부축해 병원을 나서던 날, 빔은 정규 과정을 속성으로 마친 졸업생이 된 기분이었다. 아무리 기억을 헤집어보아도 학교 생활이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 학교란 늘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열’을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있는 집과 없는 집 자식, 일등과 꼴등…… 이런 식으로 말이다.

—‘열’이 아닌 ‘우’ 쪽에 있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워?

한번은 엘리스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외교에 다닌 엘리스는 ‘우’의 세계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절대적인 ‘우’란 게 어딴니? ‘우’는 ‘우’끼리 비교해 또 다른 ‘열’을 만들어내잖아. 2등은 1등과 비교해 ‘열’이 되고, A학교의 1등은 B학교의 1등과 비교해 ‘열’이 되는 것처럼.

빔은 엘리스의 날카로운 지적에 감탄했다.

20) 『널 위해 준비했어』, 233쪽.

—나야말로 ‘우’의 학교에서 ‘열’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

외고 다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앨리스가 말했다.

빔의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 가운데 절반은 남들과 비교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났다. 당연히 학교생활이 즐거울 리 없었다. 엄마의 사고는 빔에게 지겨운 학교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난 로드 무비를 만들거야.²¹⁾ (밑줄은 인용자의 것)

㉔와 ㉕는 각각 『넌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빔’이 병원을 나서며 자퇴를 결심하는 장면을 서술한 부분이다. ㉕의 밑줄 친 부분이 ‘빔’이 그동안 학교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외고 우등생이었던 ‘앨리스’의 목소리는 ‘빔’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앨리스가 떠올리는 외고 다녔을 때의 기억은 자신의 비밀 장소(학교 옥상)에서 우연히 마주했던 한 친구의 자살로 집약된다. 자살하던 그 아이의 눈과 마주치면서 앨리스는 시선 공포증을 앓는다. 사실 자살하던 친구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표명희는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앨리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시선은 오직 견제뿐인 경쟁 위주의 학교 문화를 비판한다.

서로의 시선을 교환할 수 없는 학교 상황은 청소년을 사회화하는 기능보다는 개인화와 고립화에 이르게 만든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있다.²²⁾ 학교에서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친구’가 아닌 ‘우열’을 가리기 위한 관계만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학교의 공간이

21) 『오프로드 다이어리』, 28-29쪽.

22) 고미숙에 따르면, ‘성장’에 필요한 모든 활동은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학에서까지 지속되는 입시경쟁은 그런 친구 맺기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고미숙,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비, 2025, 14-15쪽.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를 통한 상호 소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영식·최태영, 앞의 책, 81쪽.

교육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시하고 위계질서를 세우고, 상벌을 부과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²³⁾이라는 푸코의 지적은 ‘빔’과 ‘앨리스’가 경험한 학교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앨리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우정을 기대했던 그 아이에게 앨리스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는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²⁴⁾

2) 전체로서의 사회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서술

집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빔’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바로 라면이다. ‘빔의 엄마’는 라면을 먹더라도 영양을 고려해서 달걀을 넣어 먹기를 권하지만, ‘빔’은 라면에 달걀을 넣는 것을 거부한다. 『널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서술에서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㉗ 빔은 포장지를 벗겨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었다. 엄마는 영양 보충을 위해 달걀 넣기를 간곡히 권했지만 빔은 듣지 않았다. 라면의 ‘순수한 맛’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유는 정작 댄 데 있었다. 세상으로 나갈 날을 꿈꾸며 캄캄한 껍질 속에서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을 그 투명하고 노란 생명체를 차마 자기 손으로 깨뜨릴 수는 없었다. 자고로 알이란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는, 생명의 신비로운 의무와 이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⁵⁾ (밑줄은 인용자의 것)

㉘ 빔은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었다. 주 2회 당부와 함께 엄마는

23)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9, 231쪽.

24)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몰두한다. 그러나 시험을 통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는 ‘지대추구’와 ‘사다리 걷어차기’에 몰두하게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테아, 2021, 93-94쪽.

25) 『널 위해 준비했어』, 223쪽.

영양 보충을 위해 달걀 넣기를 간곡히 권했다. 빔은 그마저 듣지 않았다. 라면의 ‘순수한 맛’을 위해서였다. 라면에 넣은 달걀 비린내는 유난히 심했다. 달걀과 라면은 절대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니었다.²⁶⁾

(밑줄은 인용자의 것)

㉔는 「넬 위해 준비했어」, ㉕는 『오프로드 다이어리』의 부분이다. 먼저 ㉔에서 빔은 라면에 ‘달걀’을 풀어 먹는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라면의 순수한 맛이란 다른 아닌 인위적인 맛이다. 그 가공된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달걀을 넣는 행위를 빔은 용납하기 어렵다. 알은 분명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을 지닌 것이고 그 생명은 스스로 부화하여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가치가 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대사를 모티프로 삼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데미안』에서는 새가 깨고 나와야 하는 알이 ‘세계’와 같은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²⁷⁾

표명희 역시 『데미안』과의 유사성이 강하다는 점을 의식했는지도 모르지만, ㉕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간단하고 담백하게 처리한다. 빔이 라면에 달걀을 넣지 않는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달걀과 라면은 절대 궁합이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㉔와 ㉕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맥락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린내는 “날콩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역겹고 매스꺼운 냄새”로 그 자체가 ‘날것’이라는 생명의 상징이다. 달걀이 라면에 들어갈 때 그 생명의 상징인 비린내가 유독 심해진다는 의미는 본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기회를 잃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의 욕망이 더 강렬하게 솟구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6) 『오프로드 다이어리』, 16쪽.

27) 헤르만 헤세, 서상원 옮김, 『데미안』, 2021, 161쪽.

이는 빔의 자퇴 결심과도 의미적 연관성을 지닌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기회를 준다기보다, 인위적인 공식에 녹아들기를 바란다.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거대한 경쟁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스스로 알을 깨고 나갈 권리를 파괴해 버리는 학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은 스스로 부화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라면에 들어가야 하는 달걀처럼, 극심한 비린내를 풍기며 저항한다.

—대체 넌 학교를 뭘로 보는 거냐?

담임은 불쾌한 어조였다.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빔이 삼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다음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털어놓았을 때였다.

—영화감독 중에 대졸자가 많겠어, 가방끈 짧은 사람이 많겠어? 그 확률만 따져봐도 결론이 나오는 거 아냐. 그걸 직접 겪어봐야 알겠어? 미련하게스리.

세상의 모든 일의 기준을 학교 또는 학력에 두고 있는 담임의 설득이 빔에게 먹힐 리 없었다. 그의 생각은 빔에겐 일종의 직업병으로 비칠 뿐이었다.²⁸⁾

빔의 자퇴 결심을 들은 담임은 자기만의 시간으로 도착하고 싶다는 바람을 학교를 향한 반항으로 받아들인다. 담임에게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달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는 확률은 매우 적지만, 차라리 라면에 흡수되어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편이 더 낫다는 것과 같다. 청소년은 한 개인이기보다 사회의 일부분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빔은 학교를 그만두고 방 안에서 영화 감상만 하면서 지내는 전형적인 ‘감상형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다.²⁹⁾ 빔이 앨리스와 채팅을 하고

28) 표명희, 『오프로드 다이어리』, 창비, 2010, 71-72쪽.

29) 이영식·최태영, 앞의 책, 67쪽.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

있을 때, ‘누나’가 문을 두드린다. 빔은 누나가 집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빔의 말에 황당해하는 누나는 어둡침침한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엄마와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는 충고를 전한다.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누나의 일방적인 충고로 마무리되지만,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누나를 향한 강한 불만이 표출된다. 그런데 그 불만은 뜻밖에 누나의 ‘화장’에 집중된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직하게 한마디 하고 누나는 돌아섰다.

빔은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누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누나가 방문을 열었을 때 불쑥 외쳤다.

“나, 누나 화장하는 거 싫어! 싫다고!”

누나 방문이 짹 소리를 내며 닫혔다.³⁰⁾

빔이 누나를 향해 화장하는 모습이 싫다고 말하는 장면은 『오프로드 다이어리』에 추가된 것이다.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는 누나와의 대화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아빠의 죽음 이후 엄마는 술이 늘고 누나는 화장이 진해진다고 서술된다.³¹⁾ 빔에게 늦은 귀가, 술, 화장은 어른들의 세계를 가리킨다. 화장이 진해지는 누나가 방 안에서 영화를 보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빔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은 미성년 꼬리 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누나의 화장은 ‘훼손된 누이’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권명아에 따르면, 전후 소설에서 어머니의 표상과 창녀의 표상이 전쟁이 안겨준 상실의 체험을 극화하는 동시에 이에 관한 상상적 보상물로 기능한

넷 사용보다는 게임이나 웹서핑과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같은 책, 101쪽.

30) 『오프로드 다이어리』, 22-23쪽.

31) 위의 책, 23쪽.

다. 이때 ‘훼손된 누이’는 주로 생활고로 인해 창녀로 전락한 누이의 이미지로 나타난다.³²⁾ 빔의 누나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우울증을 앓던 엄마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누나의 진한 화장으로 드러나며 빔은 이에 반감을 나타낸다.

한편 누나와 다른 여성 청소년의 성장은 앨리스를 통해서 전달된다. 앨리스는 외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잔소리와 간섭을 받는다. 옷차림 하나하나를 챙겨 주는 엄마에게 앨리스는 자신이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앨리스의 엄마’ 역시 일종의 우울증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쇼핑 중독과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딸을 꾸미는 것으로 표출된다. 물론 엄마가 딸을 꾸미는 행위는 단지 외형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외고를 그만두고 “집에서 청승 떨고 앓은 딸자식 생각에 기분이 얼마나 꿀꿀해지는데.”라고 말하는 앨리스의 엄마에게서 앨리스는 여성 청소년으로 엄마가 원하는 여성상에, 학생 청소년으로 엄마가 원하는 학생상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다.³³⁾

앨리스를 대하는 빔의 시각도 ‘여성’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빔에게 앨리스는 동화 속 공주처럼 자신이 구해내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빔이 자신의 방을 탈출하게 되는 원인은 앨리스 때문이다.

㉞ 기다려 앨리스, 너를 만나러 갈게.
우리, 섬진강 꽃길을 함께 달리는 거야.³⁴⁾

㉟ 여행을 할 거야, 앨리스.

32)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57쪽.

33) 『오프로드 다이어리』, 53-55쪽.

34) 『널 위해 준비했어』, 233쪽.

널 데리러 갈게.
 우리, 그곳에 함께 가보자.
 이 땅의 끝, 길의 맨 끝인 P까지.³⁵⁾

㉔는 『널 위해 준비했어』의 마지막 부분, ㉕는 『오프로드 다이어리』에 서술된 부분이다. 이 두 부분에서 앨리스는 ‘만나러’ 가는 대상에서 ‘데리러’ 가는 대상으로 변화한다. ‘만나러’ 가는 것은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마주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데리러’ 가는 것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가 합류하는 순간에 가까워 보인다.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 빔의 목적은 앨리스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때 앨리스와 함께 가는 곳은 ‘화동’(『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S’시에 있는 ‘P’로 서술됨)으로 벚꽃이 예쁘다고 말하는 도시이다. 한반도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곳에서 앨리스와 만나겠다는 생각은 세상의 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앨리스는 단편과 장편 모두에서 방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인물이다. 물론 ‘은둔형 외톨이’가 은둔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한 몰입이 전제된다. 빔이 세상 밖으로 나갔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향한 몰입만을 보일 뿐이라면, 그가 나아가는 길은 결국 좁은 시야에 갇힌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여행 중의 경험을 통해서 극복된다.

3.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나타난 ‘탈합치’로서 ‘성장’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엄마의 ‘할리’를 타고 앨리스를 만나기 위해

35) 『오프로드 다이어리』, 28-29쪽.

여행을 떠난 빔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이 꿈꾸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한다. 그리고 빔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름의 깨달음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온로드'와 '오프로드'의 관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온로드'와 '오프로드' 사이의 갈등과 '모성'을 향한 그리움

빔이 방안에서 영화를 보며 꿈꾸던 '로드 무비'는 그 정의상 주인공이 여정 중에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을 다룬 영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드 무비'를 찍겠다는 포부는 학교 안에서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을 떠나 여행을 하면서 삶을 배우겠다는 의미였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빔에게 '오프로드'에서의 삶에 '온로드'의 요소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실 길을 떠나기 위해 빔이 올라타는 '할리'조차 '온로드'의 성격을 지닌다. 엄마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선택한 '할리'는 한편으로는 창문을 열고 다녀도 답답한 자동차를 대신한 것으로 서술되지만, “그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택한”³⁶⁾ 것이기도 했다. 아빠의 죽음 이후 '보험'의 중요성을 주장해 온 빔의 엄마에게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했다.

빔은 엄마의 기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할리'를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할리'가 지닌 명품의 자태에 현혹되어 원래의 목적을 잊고 그것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빔은 '할리'라는 명품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나서는 것만을 생각했을 뿐, 그러한 행위를 위한 여러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1번 국도를 달리던 빔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경찰관 '박봉만'에게 단속된다. 박봉만은 빔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면허증이요? 오토바이도 그게 필요한가요……?”라는 빔의 대꾸는 엄마와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스쿠터를 타던 경험이 반영된 순수한 질문이었다.³⁷⁾

36) 『오프로드 다이어리』, 33쪽.

37) 『오프로드 다이어리』, 65쪽.

박봉만은 심지어 ‘가짜 번호판’(임시 번호판으로 보인다)까지 장착한 빔을 붙잡아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곧장 빔의 집에 전화를 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덤덤한 반응에 빔의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레 짐작한 박봉만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친 자신과 빔 사이에 동질감을 느낀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말야, 웃기는 얘기지만,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나마 금수 취급은 면한다고. 너, ‘금수’라는 말 알지? 다시 말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최저 임계선이, 너 임계선이라는 말도 알지? 그 최저 임계선이 ‘고졸 학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³⁸⁾

박봉만의 입으로 전달되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학력=능력’이라는 공식이 지배한다. 박봉만은 설교 과정에서 ‘금수(禽獸)’나 ‘임계선(臨界線)’과 같은 한자어의 뜻을 아는지 확인하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한 빔과 자신의 수준 차이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듯한 인상까지 보여준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강조하는 박봉만에게서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능력주의가 목격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시험’이라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 획득한 점수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시험 만능주의를 지적하는 박권일에 따르면,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승리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구조는 ‘지대추구’와 ‘사다리 걷어차기’에 몰두하게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³⁹⁾ 따라서 빔은 정상적인 청소년의 일상에서 무단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가정이나 학교, 운전 교습소 등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청소년은 ‘정상적인’ 청소

38) 『오프로드 다이어리』, 78-79쪽.

39)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 93-94쪽.

년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박봉만은 자신이 짐작한 빔의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빔이 그러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 하면서 도로를 달려야 한다고 가르친 셈이다.

빔이 박봉만에게서 풀려난 후에 마주치는 오토바이 동호회에서는 빔의 태도가 조금은 모순적으로 나타난다. 동호회원들은 앨리스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빔에게 동행을 제안하며 이리저리 달리다 보면 목 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내놓는다. 이와 같은 제안은 사실 빔이 꿈꾸는 로드무비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빔은 ‘오프로드’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기존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행렬을 따라가던 중 랜드로버 자동차와 사소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동호회원 중 한 명인 ‘카페지기’가 무리하게 추월하는 폭력적인 모습에 빔은 공포와 환멸을 느끼게 된다. 빔은 카페 지기에게 “힘없는 사람 하나 놓고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그거 쪽팔리는 일 아니에요?”라고 질타하며 바이크족들의 자질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카페지기는 빔에게 “나만큼 오프로드 여행을 많이 하고 즐기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온로드’에서는 ‘질주’나 ‘폭주’만 가능하지만 ‘오프로드’는 ‘탈주’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빔은 카페지기에게 ‘오프로드’를 하더라도 ‘길바닥’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⁴⁰⁾

빔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엄마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프로드’를 하더라도 ‘길’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모습에서 이미 길인 곳에서는 규칙을 따르겠다, ‘오프로드’는 문자 그대로 ‘길이 아닌 곳’에서 추구하겠다는 정확한 윤리의식을 보여 준다. ‘카페지기’가 보여주는 정해진 길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탈주’와 그로 인한 ‘외로움’은 타당할 수 있으나, ‘온로드’의 질서를 깨뜨

40) 『오프로드 다이어리』, 106-110쪽.

리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길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박봉만이 말했던 ‘운전면허증’과 ‘번호판’은 길 위에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달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카페지기에게 ‘면허증’과 ‘번호판’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폭주 본능으로 길 위의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쾌감을 즐길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말 그대로 이미 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소유한 자는 대형 오토바이를 정당하게 소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도로를 폭주하는 지대를 추구한다.⁴¹⁾ 빔은 박봉만에게서 번호판과 면허증(학교 졸업)이 없이 도로(세상)에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과 동호회원에게서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에는 어떻게 달리든 상관없다는 식의 모순을 경험한다. 이러한 모순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구속을 통해서만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모순적인 사실이기도 하다.

빔은 동호회의 폭주에 환멸을 느끼며 바이크족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모두 떼어낸다.⁴²⁾ 그것은 그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지대추구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빔은 자신이 긍정적으로 여기던 ‘영주’의 번호판(“서울 강* 7777”)은 자신의 ‘할리’에 옮겨 달고 길을 나선다. 여기에서는 합법적인 자격을 핑계 삼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벌이는 이들을 향한 반감과 함께 동호회의 리더이기도 한 ‘영주’의 모성적 여성성에 의지하고자 하는 남성 청소년의 욕망이 드러난다.

“내 뒤에 따라붙어.”

41) 박권일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라고 규정하였다. 박권일, 앞의 책, 133쪽. 우선 어려운 통과의를 거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권리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42) 『오프로드 다이어리』, 113쪽.

영주는 여덟 번째로 나서며 빔을 자신의 바이크 바로 뒤에서 따라오도록 했다. 빔이 아홉 번째, 빔 뒤쪽 맨 마지막엔 카페지기가 따랐다. 빔은 영주 뒤에 따라붙었다. 7777. 자신을 행운의 세계로 이끌어줄 부적처럼 보였다.⁴³⁾

또한 빔은 ‘할리’를 ‘해결사’로 여긴다. 빔은 엄마의 ‘할리’만 있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래 훔쳐 타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던 찬우에게 ‘할리’를 갖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되돌아온 대답은 “누구나 할리 탐낼 거라는 거, 그거 할리 주인의 오만이자 착각이야.”⁴⁴⁾라는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빔은 엄마의 ‘할리’에 의지하고 있었고, 폐주유소에서 마주친 동네 양아치들의 낡은 스쿠터를 따돌리다가 전복되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엄마가 남겨준 ‘할리’마저 빼앗긴다.

빔이 ‘할리’를 빼앗긴 이유는 명품이라고 불리는 그것의 성능을 과신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조정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빔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제대로 다룰 수도 없는 기성세대가 규정한 ‘명품’에 몸을 맡긴 채 길을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결국 기성 질서에서 느끼는 안락함에 자신을 내맡긴 것이다.

‘학교’라는 ‘온로드’를 따라가면서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수용하기를 거부했던 빔은 결국 엄마라는 존재가 마련한 오토바이를 타고서 자신의 길을 나설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엘리스라는 ‘여성성’에 빚지고 있다. ‘오프로드’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기성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한 것이다.

2)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가능성 수용

빔이 ‘오프로드’에서의 경험을 담은 로드무비를 찍고 싶다고 생각하면

43) 『오프로드 다이어리』, 94쪽.

44) 『오프로드 다이어리』, 179쪽.

서도 ‘온로드’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모성적 존재와 온전히 이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앨리스로 상징되는 여성의 존재들은 빔에게 안정적이고 합치된 삶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빔이 동호회의 번호판을 모두 떼어 버리면서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던 ‘영주’의 번호판을 행운의 숫자(‘7777’)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였지만 결국, 그 번호판의 주인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엄마의 자살로 인한 모성 상실의 충격이 ‘영주’라는 모성적 존재에 의지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빔’이 엄마가 남겨놓은 전설적인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떠난 것은 그것이 ‘엄마’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할리’는 엄마가 남겨준 전 재산(유산)과 같이 표현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곁에 두려고 하는데, 사실은 ‘할리’와 ‘엄마’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내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빔’이 자신만의 길을 갔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진다.

기성세대에게 ‘온로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사회적 요구와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온로드’의 삶은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오히려 밀도 높은 연결을 경험하지 못한다. ‘앨리스’와 ‘패로디’를 통해 보여준 교실에서의 경험은 우열을 가리기 위한 비교, 학교 전체에 피해 끼치지 않는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학생으로서 청소년은 ‘타인’과 진정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온라인 세상에 천착하는 동안 그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오프로드’로 내몰리지만, 소설 속 청소년이 숨어든 온라인 세상은 그야말로 ‘오프라인(연결 해제)’이 아닌 ‘온라인(연결)’의 세계이다.

그러나 『넌 위해 준비했어』와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 ‘세상 속으로’라는 카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장으로 규정된 ‘학교’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석 만남인 ‘번개’가 대단한 도전이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카페 ‘세상 속으로’의 멤버 중 한 명인 ‘사공’은 사회로의 복귀가 잘 이루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사이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상태가 호전되면서 오프라인 모임과 합숙 치료까지 진행할 정도가 된다.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대인공포증 때문에 ‘세상 속으로’를 찾았다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 ‘패로디’의 사정도 나타난다. 패로디는 수학 시간에 반 평균을 깎아 먹은 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심리적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다시 그만두게 된다.⁴⁵⁾ 문제는 패로디가 이후 앨리스에게 즉석 만남을 요청한 뒤 일부러 바람을 맞히면서, 앨리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상처를 안긴다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 온라인으로 피신한 청소년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배려와 이해심을 망각한 상태로 나아간 것이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장 온라인에 갇힌 생활로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영위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패로디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빔 역시 앨리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고자 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빔은 카페에 접속하기 위하여 들른 ‘두리 피시방’에서 앨리스에게 “여기로 오지 마, 제발 부탁이야!”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빔이 앨리스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여성(성)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빔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지에 앨리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앨리스의 외마디 절규에 ‘빔’은 앨리스가 사는 도시 ‘P’

45) 『오프로드 다이어리』, 116쪽.

46) 『오프로드 다이어리』, 184-185쪽.

로 향하는 일과 그곳에서 ‘앨리스’와 만나기로 약속한 일 모두가 자신의 방식(고집)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앨리스와의 대화가 순조로웠던 건 온라인이어서 가능했다. 그동안 앨리스와의 대화는 모니터상에서 주고받은 글자에 불과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H₂O’라는 화학식 기호를 한 잔의 물로 접하는 것과 같은 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욱이 앨리스는 시선공포증 환자가 아니었던가.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올려보면서 빔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패닉 상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⁴⁷⁾

물론 빔은 부모의 죽음으로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기에 부모가 존재하는 앨리스와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빔은 엄마의 우울증을 치료할 방법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카페에 가입했을 뿐 대인공포증이나 시선공포증을 앓는 이가 아니다.⁴⁸⁾ 빔과 달리 자살하는 친구의 눈과 마주친 후 시선공포증을 얻은 앨리스에게 ‘온라인’은 그야말로 현실이었다. 그런 앨리스에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말한 것은 방안에서 영화만 보고 있던 자신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랐던 엄마의 요구를 앨리스에게 그대로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이 앨리스에게는 보통 사람들의 오프라인 세상이나 다름없는 걸 빔은 잠시 잊고 있었다.”⁴⁹⁾라는 빔의 진술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정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확장된다. ‘오프라인’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온라인’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의미장 존재론을 주장하면서 오직 ‘실존’ 개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가리키는 ‘실존’이란 한 의미장 안에서 나타

47) 『오프로드 다이어리』, 140쪽.

48) 『오프로드 다이어리』, 44쪽.

49) 『오프로드 다이어리』, 207-208쪽.

남을 가리킨다. 그에 따르면 절대적인 실존 의미는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대상도 모든 의미장 안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의 의미장이 모든 대상의 총체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의미장에서 등장하는 어떤 대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⁵⁰⁾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빔’과 ‘누나’의 대립은 이 소설에서 말하는 성장 담론의 핵심을 이룬다. 방안에서 영화만 보던 ‘빔’을 향해 비판하던 ‘누나’에게 ‘현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오프라인’이다.

—현실을 인정해, 빔.
누나가 말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사라지니, 이 엄연한 현실이?
누나는 번번이 강조했고 그때마다 빔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안에서 현실주의자는 누나로 죽해. 난 싫어!
그런 다툼은 둘 사이에 직접도록 되풀이되었다.⁵¹⁾

빔의 누나는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합치에서 벗어나야 함을 자각한다. 누나에게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하는 것은 현실을 극복할 힘이 아니며,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의지만이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원동력이 된다. 누나는 방안에서 영화만 보던 빔에게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전화하여 엄마를 찾는 빔에게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를 소리친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빔은 기성세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청소년이다. ‘은둔형 외톨이’에게 절대 금물은 부모가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은둔하는 자녀를 향한 비난, 설교, 부정적 태도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부모-자녀의 관계마저도 악화시킨다.⁵²⁾ 빔의 보호자인 누나의 힐난은 빔이 더욱 현

50) 마르쿠스 가브리엘, 전대호 옮김, 『허구의 철학』, 열린책들, 2024, 149-153쪽.

51) 『오프로드 다이어리』, 202쪽.

52) 이영식·최태영, 앞의 책, 223쪽.

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엄마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정상 가족’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치된 기준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할 때,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가 없는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남겨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 개인에게 내면화됨으로써 부모의 부재를 극복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빔은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세상을 피해 은둔한 것이다.

빔이 은둔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용기를 얻는 과정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향한 그리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황하는 빔에게 친엄마의 여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학교 공부를 마치라고 조언하는 사회에서 빔은 엄마의 ‘할리’에 자신을 신고 자기 내면에 자리 잡은 익숙한 정상 가족의 형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안정감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들을 위해 엄마가 마련한 선물이었다.”⁵³⁾라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빔은 ‘할리’와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PC방 주인아저씨에게 “그럼요, 제 분신이나 다름없는걸요.”⁵⁴⁾라고 말한다. 찬우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부딪혀 버렸을 때에도 “그거 우리 엄마 몸 팔아서 산 거라고!”⁵⁵⁾라고 외친다.

그러나 ‘청소년’은 ‘정상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만 존재할 이유도 없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이유도 없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저마다의 실존적 의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도망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도망함으로써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엄

53) 『오프로드 다이어리』, 49쪽.

54) 『오프로드 다이어리』, 144쪽.

55) 『오프로드 다이어리』, 158쪽.

연히 자신들의 의미장 안에서 실존하는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꽃자리투성이 벚나무를 담을 생각이었다. 엘리스라면 이런 낯선 장면도 좋아할 것 같았다. 한 컷 한 컷 풍경을 정성스레 담았다. 그러면서 빔은 깨달았다.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간 길, 그 길을 따라가며 그들이 놓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몫이지 모른다는. (...) 빔은 다시 스쿠터에 올랐다. 뒷자리에 엘리스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스가 두 팔을 빔의 허리에 감고 얼굴을 빔의 등에 살짝 기대 왔다. 마른 바람이 물기를 머금은 듯 부드러워졌고 도로변에 뒤섞여 난 잡풀들이 향기를 술술 내뿜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활기차게 살아 움직였다. 빔은 엘리스를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엘리스를 위해 자세를 낮추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달렸다.⁵⁶⁾

꽃자리만 남은 벚나무를 보며 망연자실하는 빔에게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꽃이 핀 벚꽃 나무와 꽃이 진 벚꽃 나무도 같은 벚꽃 나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꽃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면서 시간에 관한 깨우침이다.⁵⁷⁾ 개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식 과정에서 특정한 정보를 취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레고리 번스는 인간의 정체성은 서사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스키마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이해의 틀을 제공”하며 “이런 압축된 표현들은 당신을 ‘당신’으로 만들거나,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한다.⁵⁸⁾

결국 빔은 자신에게 익숙한 서사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청소년에게 언제나 학생과 자녀의 모습을 기대할

56) 『오프로드 다이어리』, 207-208쪽.

57) 『오프로드 다이어리』, 205-207쪽.

58) 그레고리 번스, 홍우진 옮김, 『‘나’라는 착각』, 흐름출판, 2024, 73쪽.

수 없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진짜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이는 단지 이상적인 관점이 아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이나 치료적 관점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게 무조건 바깥으로 나오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⁵⁹⁾

작품 속에서 빔의 엄마는 어떻게든 현실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빔의 누나는 이상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현실’에 집중한다. 엘리스는 순간의 무관심으로 세상을 등지게 만든 자신을 향한 죄책감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에서 온라인으로 도피하고 패로디는 더욱 심해진 대인기피증으로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마저도 상실해 버린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사회로 나가려는 듯한 암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그들은 자신만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었다.

인터넷 카페 ‘세상 속으로’는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잠시 숨어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바깥(오프라인)세상과 동등한 세상으로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 세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빔은 엘리스를 향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던 ‘획일성’을 띠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와 동시에 엄마가 존재함과 부재함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연결한다. 빔의 엄마는 ‘오프라인’에서는 부재하지만 빔의 마음에는 엄연히 존재하며, 따라서 엄마를 부재 또는 존재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빔은 엄마와 산뜻한 이별을 이루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연결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용기를 얻는다. 그것은 모성적 세계와 정상적 가족이라는 기존의

59)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복귀했다가도 은둔 생활에 재돌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무리하게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일단 사회에 나오더라도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쌓아 가게끔 하는 사회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영식·최태영, 앞의 책, 69-70쪽.

합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존적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표명희의 청소년 소설이 ‘난민’을 소재로 삼은 작품 중심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초기 청소년 소설인 단편 『널 위해 준비했어』와 표명희의 첫 장편 『오프로드 다이어리』를 분석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형상화되었고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지 살펴보았다.

단편 『널 위해 준비했어』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성장은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택으로 형상화되었다. 반면 장편 『오프로드 다이어리』에서는 여행 중에 경험한 다양한 만남과 갈등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의 성장은 은둔과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긍정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온로드’와 ‘오프로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서 청소년의 정체성이 여러 층위를 넘나들며 형성될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합치된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탈합치’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의 모습이다.

두 작품에서 빔의 성장은 기존의 학교와 학력 중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자신만의 경험을 중시하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표명희는 ‘온라인’을 실제 삶에서의 ‘도피처’가 아니라, ‘실존하는 삶의 장’으로 그린다.⁶⁰⁾ 청소년의

60) 원거리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동시적인 원격 현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텔레토피아적인 기술로 형성된 ‘비(非)장소’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간-실시간’이다. 폴 비릴리오, 배영달 옮김, 『탈출속도』,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20쪽.

성장을 돕는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강요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합치된 교육을 통해 획일적인 사회화를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표명희의 문제의식은 ‘난민’을 소재로 다룬 그의 청소년 소설의 초석이 된다고 보인다. ‘하나의 정체성이 가능한가’, ‘하나의 세계만이 진실한가’라는 질문은 국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고뇌와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난민의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단일하거나 완결된 상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자리에 응시하며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청소년’과 ‘난민’이라는 존재는 모두 ‘탈합치’와 ‘합치’의 경계에 선 인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에 수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들은 성장소설의 주인공이자 경계에서 머무르는 사유의 주체로서 작동한다.

결론적으로, 표명희의 두 작품은 청소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이중적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히 ‘복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현실의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포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학의 장르적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표명희, 『넌 위해 준비했어』, 원종찬 엮음, 『라일락 피면』, 창비, 2007, 213-249쪽.
_____, 『오프로드 다이어리』, 창비, 2010.

2. 단행본 및 논문

- 고미숙,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비, 2025.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구자황,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교육 정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7집, 우리문학회, 2012, 193-218쪽.
김경민, 『경계 위의 인권: 난민 문학의 인권담론』, 『법과사회』 6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1-24쪽.
김상욱 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장르론』, 청동거울, 2013.
강진구, 『한국문학 속 난민의 재현 양상-최인석의 『스페인 난민수용소』와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94집, 중앙어문학회, 2023, 171-196쪽.
나은영, 『조지 허버트 미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
백낙청 엮음,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981.
안지현, 『퍼센트』, 이데아, 2024.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311-338쪽.
이행선, 『난민,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과 인권, 문화 갈등: 표명희, 『어느

- 날 난민』(2018)』, 『민주주의와 인권』 제2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3, 229-261쪽.
- _____, 『중동 아랍권 무슬림 난민의 유입과 한국의 수용: 표명희, 『버샤』
(2023)』, 『인간·환경·미래』 제33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
연구원, 2024, 61-103쪽.
- 정용호, 『청소년 시가 나아갈 방향성과 청소년 시집에 나타난 비판 의식
양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309-340쪽.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장르론』, 청동거울,
2023.
- 허라금,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철학과현실사, 2004.
- 이소베 우시오, 이성동 옮김,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대숲바람,
2009.
- 리처드 세넷, 유강은 옮김, 『무질서의 효용』, 다시봄, 2014.
- 마르쿠스 가브리엘, 전대호 옮김, 『허구의 철학』, 열린책들, 2024.
-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9.
-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정영주 옮김, 『디아스포라
와 혼종성』, 에코리브르, 2014.
- 폴 비탈리오, 배영달 옮김, 『탈출속도』,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 프랑수아 줄리앙, 이근세 옮김, 『탈합치』, 교유서가, 2021.

<Abstract>

The Growth of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in Young Adult Fiction
- The Case of Pyo Myung-hee’s “Prepared for
You” and *Off-Road Diary* -

Jeong, Yong-Ho*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growth narratives of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in Pyo Myung-hee’s early young adult fiction, focusing on *Prepared for You* (2007) and *Off-Road Diary* (2010). While previous studies on Pyo Myung-hee’s works have largely concentrated on refugee narratives, this paper seeks to extend the discussion by exploring the meaning of growth embodied by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in her early novels.

As the short story *Prepared for You* expands into the novel *Off-Road Diary*, the growth of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is no longer depicted merely as a return to society or the restoration of normality. Instead, adolescents are portrayed as subjects who move fluidly between online and offline spaces, reconstructing their identities through diverse relationships and actively shaping their own worlds. *Off-Road Diary* presents a narrative in which adolescents’ choices and desires become more distinct, redefining socially withdrawn youth not as figures of maladjustment but as autonomous subjects who exist meaningfully in their own positions.

* University of Ulsan

Furthermore, through the contrasts between “on-road” and “off-road,” as well as between “online” and “offline,” the novel reveals that adolescent identity cannot be fixed within a single social framework. It also expos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offline-centered social norms in fully accounting for the realities of adolescents’ lives. Pyo Myung-hee’s young adult fiction thus offers a new perspective that moves beyond viewing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solely as objects of correction or reintegration, instead understanding them as beings who actively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their own growth within relational contexts.

This perspective resonates with the identity struggles of refugees, who are similarly positioned as social outsiders whose identities are defined by boundaries and displacement. In this sense, the growth narrative of socially withdrawn adolescents can be understood as forming a conceptual continuity with refugee narratives, serving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thematic development of Pyo Myung-hee’s later young adult fiction.

Key Words: growth, youth, reclusive adolescent, young adult literature, adolescent fiction

■ 논문접수 : 2025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5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12월 15일